

2017년 5월 22일, 조천읍 함덕리 함덕3구경로당, 강수경 조사.

제보자1: 양정렬(여, 1933년생, 조천읍 함덕리)

제보자2: 김복덕(여, 1936년생, 조천읍 함덕리)

- 줄거리: 함덕에서 며느리가 시댁에 명절 음식을 준비하러 아침 일찍 나섰다. 시댁 근처 사거리에 왔을 때 검은 것이 앞에 꽂꽂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. 그러더니 차일피일 몸에 땀이 나면서 점점 아파갔다. 아픈 게 낫지 않아서 심방을 빌어서 굿을 하기로 하였다.
함덕 해수욕장 근처 영밭에 장막을 치고 하루 종일 굿을 하였다. 그러더니 다시 차차 몸이 나았다.

[제보자1] 그거 골아주주이. 난이. 2구에 살고 시어머니 사는 디는 3구라. 이제 집터에.
그디 살 때. 시집이 저기 멩질 출리레 아척이 일찍 와사주게.

출리레 오단 보난이 그냥 저. 삼거리 잇지. 거기. 소거리. 털보식당 앞에. 소거리에이 거멍헌 무시것이 그냥 과짝 산 거라. 게난 눈도 뭣도 ㄱ립지 못헹 탁자빠진 거라. 경 허난 나가이 피일치일이 막 그냥 나 자신도 몰르게시리 몸이 새륵새륵새륵 허멍이 뜸만 잘잘 나곡 밥은 먹어지곡. 경 허멍 노시 경 허난이 단골네 빌언 굿햇주게. 굿햇어. 굿헨 그루후제이.

게난 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부난 몰르는 거라. 눈으로 보없이민 허주만은 이 귀신이 있다 엇다 말은 못 허크라게. 그걸로 빙은이 귀신이 잇덴도 못허곡, 엇덴도 못허는 거라. 경 심방 빌언 헌 후제이 나 자신도 몰르게 추추추추 그냥 낫아분 거라. 낫아. 경 헤네 이 오늘??정 이거 이제 팔십 넘어 살아온 거 아니.

[조사자] 거문 도체비에 놀렝 굿은 어떻 하루에 협니까?

[제보자1] 허루에 허여. 허룻밤 허루.

[제보자2] 푸다시햇주게.

[제보자1] 푸다시. 심방 빌언. 저 영밧디 강 헛어. 이제이 저 해수욕장 그 벨장이 이펜 쪽 에가 영밧이엔 헌 디가 잇어.

[조사자] 영밧?

[제보자1] 응. 영밧도 그디 간에 장막천. 심방 빌언. 경 행 헛어. 허룻밤 허루.

[조사자] 건 무사 거기 강 허는 거마씨? 이녁 집에서 안 하고 무사 거기 강.

[제보자1] 베꼈다서이 얻은 귀신이라부난. 갯것이로 헹 그날 굿허나네이 배 멘들앙 띠왓 어. 산디짚으로 영 헨 멘들엉 심방이. 경 헌에이 나가이 귀신이 잇덴도 못허곡. 엇덴도 못허커라. 눈으로 나 보이는 건 그것뻘이 없는데 단골네 빌언 헤연 이녁 몸이 상쾌하이 오늘날??정 왓단 그말이여. 경 허난 확실히 잇다. 확실히 없다. 경도 못 허크라.

[조사자] 단골네가 심방을 말하는 거마씨?

[제보자1] 심방.

[조사자] 그때 심방은 누구라난마씨?

[제보자1] 맹선이 죽어불엇어.

[조사자] 그 심방이 명선이?

[제보자1] 응.

[조사자] 무슨 명선?

[제보자1] 김명선.

[조사자] 김명선? 함덕 사는 심방이우과?

[제보자1] 응. 함덕 사는 심방. 그 심방 빌언 헤연.

(노인회관에서 채록하는 과정에 주변에서 간단히 모임 내용을 얘기하다가 심방 이름을 듣고 고명선이 맞다고 의견이 모아졌다.)

[제보자1] 고명선이라 김명선이라. 고명선일 거여. 몰라원 맹선이엔만 그자. 경 헹 헤연. 경 허난이 확실히 엇덴도 못허곡 잇덴도 못허는 거. 이거. 자기가 보지 않으니까.

[조사자] 맞수다.

[제보자1] 이것이 영 헤네 낫아부난. 아 심방이 영 허난 낫아젖구나. 영 헌 거. 그런 느낌.

[조사자] 게도 낫이난예.

[제보자1] 낫안. 오늘날??정 여든 넘어 살안.

[조사자] 거믄. 몇 살 철마씨?

[제보자1] 누구?

[조사자] 어르신 몇 살 때. 결혼한 후제 아니예?

[제보자1] 허연에 나가 스물아홉에. 스물아홉에 결혼햇주.

스물아홉 나던 해에 팔월 둘이라.

- 핵심어 : 도체비, 도깨비, 귀신, 심방, 무당, 굿, 푸다시, 넋들임, 함덕리